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확실한 보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있듯이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확신에 이끌려 삶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특별한 은혜에 무관심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는 죽음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추억은 부자라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추억을 남기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명절을 맞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2025년 설 가족예배



✿ 가정예배순서 ✿

◎예배선언

귀하고 복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5년 설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7편 3-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3)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37:3-6]

◎찬 송 / 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고백 / 사도신경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 전도서 12장 1~2절

-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선포 /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합심기도

1.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찬 송 / 382장(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폐 회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